

# 병해충 발생면적 크게 줄고 농약 방제횟수도 줄어

총 56만ha 발생, 전·평년 각각 81%·44%수준에 그쳐  
1999년 이후 4년 연속 줄어, 세균성벼알마름병·이삭도열병 늘어

-홍보부-

**지**난해 벼 병해충 발생면적이 크게 줄고 농약방제 횟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병이나 충의 발생은 교차적으로 발생이 많거나 적은 경향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는 통계로 보아 병이나 해충 모두 발생이 적은 해로 기록되었다면서 그러나 여름장마가 시들해지는 반면 가을장마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삭도열병이나 세균성벼알마름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

므로 이에 대한 방제에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벼 병해충 발생면적을 보면 총 56만ha로써 이는 전년의 81%수준이며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44%수준으로 1999년 이후 4년 연속 병해충 발생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과 육묘상자에 입제 농약을 뿌리는 등 철저한 초기방제로 농약 방제횟수도 7.3회에 그쳐 전년도 9.6회 및 12회의 평년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병해충 발생면적을 보면 잎도열병은 주 감염시기인 6월 하순과 7월 중순에 비가 적어(공중 습도는 72%로 전년도보다 4.8%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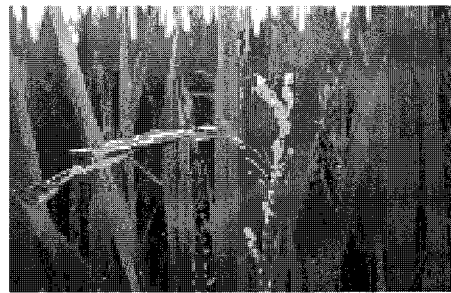
발생면적이 2만1백8ha로 전년의 34%, 평년의 29% 수준에 그쳤다.

이삭도열병은 4천66ha로





▲ 이삭을 빨고 있는 먹노린재



▶ 이삭에 나타난 피해모습

전년의 95%, 평년의 34% 수준이었고 잎집무늬마름병은 생육중기까지는 발생이 적다가 생육후기 연속강우로 벼 포기내 습도가 높아져 지난해의 90%, 평년의 61% 수준인 24만9천7백61ha까지 발생했으며 애멸구가 옮기는 바이러스병인 줄무늬잎마름병은 2천8백4ha로 전년의 55%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986년 이후 국내 발생이 증가하여 이삭도열병에 벼금가는 문제 병해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세균성벼알마름병은 발생면적이 1만9백73ha로 전년의 166%, 평년의 183% 수준으로 늘었으며 흰잎마름병도 최근 태풍이나 침관수와는 큰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발생면적이 2천1백9ha로 전년의 230%, 평년의 33% 수준이었다. 또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1998년에 최고발생(214,103ha)을 보인 후

발생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는 벼물바구미는 10만4천3백86ha로 전년의 84%, 평년의 79% 수준에 머물렀으며 벼멸구와 흰등멸구는 각각 5백82ha와 4만2천9백39ha로써 전년의 24% 및 49%, 평년의 1% 및 22%수준에 그쳤다.

중국으로부터 비래량이 적은 흑명나방은 2만7천7백16ha로 전년의 80%, 평년의 28% 수준이었으며 산이나 잡초 등에서 생활하다가 논으로 이동, 벼이삭을 흡즙하여 쌀알에 반점미(갈색점)를 생기게 하는 먹노린재는 전년의 56%, 평년의 44% 수준인 3천7백44ha로 적었으나 발생이 증가하는 해충이다.

또 쌀알에 검은색 점을 생기게 하여 쌀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벼잎선충은 주로 전북, 경북, 이남 남부지역에서 발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농약정보**